

## 성령의 열매(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야고보서 5 장 7-11 절

### 1. 현대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제자훈련

교회에서는 다양한 제자훈련을 합니다. 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모두 중요한 주제입니다.

헌데 저는 현대인들은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그리고 인내의 문제**를 필수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특히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주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너무 힘들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때,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오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놀리고 화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참지 말라고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인내를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고,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기분이 언짢을 때, 참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 2. 인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내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왜 성령의 열매로 제시되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알아보시다.

**인내란, 헬라어 '마크로뒤틀미아'(makrothumia)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성경에는 patience, long-suffering, forbearance 와 같은 다양한 단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헌데 헬라어 '마크로뒤틀미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Makros (long, 길다) + thymos(anger, 분노)**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분노가 길다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충분히 긴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인내의 의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인내란 우리의 분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대부분 억울하거나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인내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고통스런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둘째, 가급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관용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인내란 분노를 유발하는 극심한 상황에서 오래 참을 줄 알고, 동시에 상대방에**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관용의 성품**

따라서 인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인내하였으니, 너희도 인내하라. 그걸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내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 장 1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인내는 곧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34 장 6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제 자신들의 신이라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너무나 화가 나셨지만, 그러나 34 장 6 절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하나님이시기에, 즉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길이 참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헌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미래에 출세할 것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 21 장에 나타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자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참으십니까? 왜 이렇게 인내하십니까?**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평생 배신자 혹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래 참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도무지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에게 대해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 3.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인내를 생각해봅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 장 7-8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참을 것을 요청**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고,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형성되어 지하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나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팔레스틴의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땅은 메마르게 되고,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이릅니다. 농부는 메마른 땅을 보며 간절하게 비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10 월경에 비가 내립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와 함께 농부는 땅을 갈고 씨앗을 파종합니다. 메말랐던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습니다. 슬슬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농부는 다시 한 번 비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 농작물이 결실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봅시다.

농부는 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에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거북하고 불편한 상대방에 대해 관용의 덕을 베풀게 됩니다.

## 4. 인내의 반대말과 위조품

이제 인내의 반대말과 위조품을 생각해봅시다.

인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분노입니까? 화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4 장 26 절과 27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이 말씀에 의하면 **분노와 죄는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과 복수심입니다**. 왜 두 가지인가 하면, **앞서 인내를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조급함으로 인해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신 **오래 참음과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와 관련하여 창세기 4장과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여기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즉 **인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의 반대말은 복수심**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과 복수심입니다.** 조급함과 복수심 대신, 오래참음과 관용을 장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이제 **인내의 위조품을 생각해봅시다.**

**얼핏 보면 인내처럼 보이는데 인내가 아닌 불량품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인내와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참는 것처럼 보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내는 아닙니다. 그게 무관심입니다.**

인내와 무관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대면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는가,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인내는 문제를 대면합니다.** 다만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관심은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니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 5. 인내의 발효 그리고 장자의 혼돈 이야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였다고 말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의 핍박에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부당함과 폭력을 과묵하게 견디는 인내**가 교회의 성장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인내**라는 **아비투스**, 그러니까 **인내의 습관적인 행위가 당시 조급하고 성마른 습관에 젖어 살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분노해도 마땅한 상황이나 욕이 나올 상황인데,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오래



##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참고 심지어 상대방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로마제국의 모습과 너무나 이질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세례를 베푸는 준비 과정도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한 훈련과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며,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장착하는 것, **특히 인내의 성품을 장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후 과정 역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인내라는 미덕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장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 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시 말해,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는 인내를 우리 안에 장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판단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분노는 폭력이 되어 죄가 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오래 참음이나 관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내의 열쇠는 판단 중지**입니다.

인내를 우리 안에 장착한다는 것은 판단의 자세를 중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상황을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5. 인내 - 반응을 늦추는 성품

우리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는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